대입 개편, 정시 확대·수능 절대평가 '팽팽'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 조사
1안·2안 시민의견 오차범위
광주교육청 등 정시확대 비판
교육부 이달말 최종안 확정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시민참여단)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선발인원 비중을 45%로 높이는 개편안(시나리오 1)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시나리오 2)이 오차범위에서 2위에 올라 대입 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선발의 공정성에 무게를 둔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와 학교 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둔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이라는 상반된 의제가 이번 조사에서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지지세를 얻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브리핑을 열어 "4가지 대입 개편안에 대해 시민 49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시나리오 1과 2가 각각 1,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5점 만점 지지도 조사에서 시나리오 1은 3.40점, 시나리오 2는 3.27점을 받았다. 공론화위는 "시나리오 1, 2가 각각 1,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능위주 전형(정시모집)의 적정 비율에 관한 물음에는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과 관련해 '20% 미만'이라는 의견은 9.1%에 그쳤고, '20% 이상'이라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대입은 20.7%, 2020학년도 19.9%였으나, 시민참여단은 정시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현행(선발 비중 36%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로,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보다 많았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학생부위주전형(수시모집)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 전형(정시)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절대평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일 교육부에 넘길 권고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공론화위 조사 결과에 대해 5일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 유지는 학생의 선택권 존중, 자유학기제 활성화, 고교학점제 추진, 인성과 창의성 교육 등 학교교육의 어느 하나도 추진해 낼 수 없게 하는 개악"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도 논평을 내고 "수능위주 전형 선발 비중을 45%로 늘리는 것은 대형학원, 재수생, 특목고 학생만을 위한 정책이다. 공교육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교육비 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기찬랜드 폭염 탈출 인파 5일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를 찾은 피서객들이 계곡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교사들에 갑질한 교장, 교감으로 강등된다

전남도교육청 중징계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물의를 빚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광주일보 2018년 7월 24일자 7면 보도〉이 강등 조처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 결과를 오는 9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공모 교장인 A 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교장·교감 전용 공간을 운영하게 하고 교사 폄훼 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과도한 질책, 인격모독 등 교사 존엄을 훼손한 사례도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사들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교육감직 인수위에 올리며 공론화했다. A 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공모 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아파트 4538세대
하자처리실태 일제점검

광주지역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북구가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북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사용검사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역 1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처리실태 일제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사용검사 후 2년 이내(2016년 8월12일~올해 7월20일)의 공동주택으로, 총 17개 단지 4538세대다. 북구는 지난달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미처리 하자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파악된 중점 하자점검 내용은 아파트 주요 구조부 균열, 입주민 생활편의·안전시설 적정 시공 여부 등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산강 녹조 확산
죽산보 수질예보 '주의' 격상

영산강에 녹조가 번성하면서 죽산보 수질예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죽산보 남조류 세포 수가 지난달 30일 취수한 표본을 측정한 결과 16만2004셀(cells/㎖)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측정값을 토대로 지난 2일 오후 5시를 기해 죽산보 수질예보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강화했다. 죽산보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었다. 영산강 승촌보에 같은 날 발령된 수질예보 '관심' 단계는 유지되고 있다.

수질예보는 남조류 개체 수나 클로로필-a 예측 농도에 따라 평상·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45	달뜸	00:29
해짐	19:31	달짐	14:24

폭염은 계속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26/36	보 성	구름 많음	24/34
목 포	구름 많음	27/34	순 천	흐리고한때비	27/35
여 수	구름 많음	27/34	영 광	구름 많음	26/34
나 주	구름 많음	25/36	진 도	맑음	24/34
완 도	맑음	26/35	전 주	구름 많음	26/35
구 례	흐리고한때비	25/36	군 산	구름 많음	26/34
강 진	맑음	25/36	남 원	흐리고한때비	25/36
해 남	맑음	25/35	흑산도	맑음	26/32
장 성	구름 많음	25/3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	북서~북	0.5
	먼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북~북동	0.5~1.0
	먼바다(동)	서~북서	0.5~1.0	북~북동	0.5~1.5
	먼바다(서)	서~북서	1.0~1.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매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28	08:23
	13:59	21:24
여수	09:45	03:10
	22:34	16:32

◇주간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27/36	26/36	26/36	26/35	26/35	25/35	25/35

"인권보호 버팀목 되고 디딤돌 되자"
광주경찰 '버디 프로젝트' 큰 호응

광주 모 의류매장에서 양말 등 생필품을 훔친 장애인 김모(여·50)씨,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주택가 주차차량에서 1400원을 훔친 신모(22)씨 등은 요즘 경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광주경찰이 처벌보다는 광주고용복지센터, 지자체, 노숙인 쉼터 등과 협업해 취업 및 생계비 지원, 숙소를 제공하는 등 자립·재활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이 시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광주형사 버디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광주경찰이 자체 치안시책으로 진행중인 버디프로젝트는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의 줄임말로, 시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광주경찰은 사건 수사팀과는 별도로 각 경찰서 내에 형사지원팀장이 총괄하는 3~5명 규모의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건진행절차 안내 등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보호팀은 특히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재활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등 생활 속 경미 범죄에 대해서도 '화합 간담회' 등을 주선해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피의자 등 약자에 대해서는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긴급의료비 지원은 물론 기초수급자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최근 자살자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자살자 유가족의 추가 자살 방지 업무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자세로 인권과 피해자 보호는 물론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